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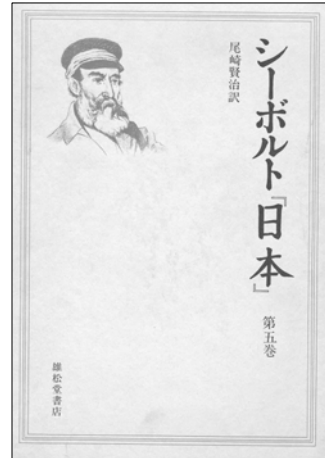
69 シーボルト 「日本」 시-볼트의 일본

1978년 / Philipp Franz von Siebold / 14,20-01 지45시 1978

시-볼트(Philipp Franz von Siebold, 1796~1866)는 도쿠가와 막부 후기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일본 상관(商館)의 의원으로 일본에 온 독일인 의사다. 1823년 자바를 거쳐 나가사키에 와서 학원과 진료소를 열어 서양의학을 전달함과 동시에 제자를 양성하기까지 했다.

1828년 귀국 때 배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거기에 적재했던 시-볼트의 짐 속에서 일본의 고산자(古山子)라 불리는 伊能忠敬(이노 타다타카)가 그린 일본의 지도가 발견되었는데, 이 때문에 시-볼트는 국외추방과 동시에 재입국 금지처분을 받았다. 이른바 ‘시-볼트 사건’이다. 그는 대단히 호기심이 강한 사람으로 일본 체류 중 그의 역작인 「일본」을 비롯하여 「일본동물지」와 「일본식물지」도 출간했다.

그는 네덜란드 국적 독일인인데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1858년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통상조약이 맺어지자 1959년 다시 일본에 와서 1868년까지 체제하면서 「江戸參府紀行(에도참부기행)」과 「시-볼트 일본교통무역사」 등을 저술했다. 어쨌든 시-볼트는 일



본의 개화(開化)에 크게 이바지한 5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.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했고, 이는 그의 대저인 『일본』이란 책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으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1편 朝鮮(조선)

제1장 일본 해안에 표류한 조선인으로부터 들은 조선 사정

제2장 조선인, 대마도의 일본 사무라이 및 관원, 부산의 일본 상관에서 들은 정보

제3장 어휘(語彙)

제4장 달조(韃靼) 해안에 표류하여 북경을 거쳐 조선 경유 귀국한 일본인 어부의 조선견문기

제5장 조선의 제도, 관리 및 신화

제7장 일본문헌에 의한 조일, 중일관계

제1절 조선 반도사 총설

제2절 일본측 사료에 의한 일본과 조선 및 중국과의 관계

제8장 千字文(천자문)

시-볼트는 권말(券末)에 천자문(千字文)을 수록하고 있다. 천자문은 AD 285년 백제의 왕인(王仁) 박사가 일본에 전달했다. 시-볼트는 天(テン.アメ.하늘텐), 地(ゲン.クロク.가물현) 하는 식으로 일본문자로는 음(音)과 훈(訓)의 두 가지로 표기하고 우리글로는 한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. 또한 그는 천자문을 일본어, 조선어, 중국어와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다.

